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큰징거미새우 기술이전 교육 성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최연수)가 지난 23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성 민물 고기연구소에서 2021년 큰징거미새우 기술 이전 교육을 마쳤다.

〈사진〉

이번 교육에는 전국 공모로 선정된 교육생 35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지난 6월 14일부터 양식기초 이론으로 구성된 기초과정 32시간, 큰징거미새우 양식이론, 먹이생물, 질병 관리, 종자생산 등 심화과정 100시간 등 총 132시간의 교육 시간을 이수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박준택) 소속 해양조사 등 양식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양식 이론 지도와 함께 5차례의 선진 양식 어가의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양식 이론과 더불어 체험 교육을 통한 심층적인 기술이전 교육이 이뤄졌다.

기술이전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8-9월 창업을 위한 경영관리, 정책자금 대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받고 우수한 큰징거미새우 양식장을 찾아 이론과 병행한 심층적인 현장 컨설팅도 받게 된다. 최연수 센터장은 "교육생들의 큰징거미새우 양식 창업지원에 물론 향후 가공·유통·관광에 이르기까지 전



〈사진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수 센터장은 "교육생들의 큰징거미새우 양식 창업지원에 물론 향후 가공·유통·관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 육완순 이사장 별세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로 불리는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3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현대무용진흥회에 따르면 육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육 이사장은 미국 유학 중 마사 그레이엄 등으로부터 현대무용을 익힌 뒤 귀국, 1963년 서울 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에서 발표회를 통해 국내에 현대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196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50여 년간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1975년 최초의 한국 현대무용단인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대표작으로는 '초혼', '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살풀이', '한두레', '실크로드', '물마루', '학' 등이 있다.

1973년 이화여대 강당에서 초연한 '저저



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48년간 국내외에서 310여 회라는 한국 최장 최다 공연기록을 가진 현대무용의 대조화를 이끈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육 이사장의 대표 저서로는 '현대무용', '현대무용실기', '무용즉흥', '안무', '서양무용 인물사' 등이 있다.

제30회 서울신문화상, 88서울올림픽 개최식 안무표창,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제13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무용인상, 제3회 아름다운 무용인상, 국제춤제연맹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 명인상, 2019 세계무용의 날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이상만 전 서울대 지질학과 교수와 딸 이지현 씨 등이 있으며, 가수 이문세가 고인의 사위이다. /연합뉴스

범한철학회 신임 회장에 조선대 이철승 교수



조선대학교 이철승(사진) 글로벌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화학부(철학전공) 교수가 범한철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2022년 7월부터 1년 간 범한철학회 회장직을 수행한다.

1986년에 창립돼 올해 35주년을 맞은 범한철학회는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아우르는 전국 규모로 철학하다. 범한철학회의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된 등재지로 우수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하나은행, 헌혈증 1000매 기증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현욱)와 하나은행이 최근 백혈병 소아암협회광주전남지회에 헌혈증 1000매와 항균 여립이불 30채,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현욱)와 하나은행이 최근 백혈병 소아암협회광주전남지회에 헌혈증 1000매와 항균 여립이불 30채,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연합회와 하나은행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혈 부족 및 백혈병소아암 환우들에게 동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헌혈증과 항균 여립이불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전달했으며, 백혈병·소아암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현욱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매일 힘든 투병상황을 견뎌내는 환우분들을 생각하자면 사랑

의 실천이자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은행과 교직원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연태 기자 yjyou@kwangju.co.kr

순천 프라임에셋 로얄지점 좋은이웃가게 캠페인 동참



순천 프라임에셋 로얄지점(지점장 박찬수)이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 아동권리보호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 마스크 10만장 전달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가 최근 전남 사회혁신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에 마스크 10만장(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TV프로그램 26일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올림픽 투데이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50 이 맛에 산다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여기는 도쿄 <양궁/펜싱/유도>	50 2020 도쿄올림픽 <양궁/펜싱/농구 여자예선, 대한민국:스피닝/수영/유도>	10 SBS 도쿄올림픽 <양궁/펜싱/유도/수영>
10	00 2020 도쿄올림픽 <농구, 수영>			
11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2020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탁구, 비치발리볼>	00 여기는 도쿄 <유도/펜싱/양궁>	50 MBC 뉴스	
1			00 2020 도쿄올림픽 <양궁/유도/펜싱/다이빙/사격>	30 SBS 도쿄올림픽 <양궁/펜싱/유도>
2				
3	00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농구>	00 KBS 뉴스타임 10 여기는 도쿄 <양궁/펜싱>		
4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2020 도쿄올림픽 <사격, 카누, 테니스>	00 여기는 도쿄 <유도/펜싱>	30 2020 도쿄올림픽 <유도/펜싱/수영>	30 SBS 도쿄올림픽 <유도/수영>
6				50 닥터 365 5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2020 도쿄올림픽 <체조, 수영, 역도>	30 여기는 도쿄 <펜싱/탁구>		50 SBS 8 뉴스
8			40 MBC 뉴스데스크	40 SBS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00 KBC 8 뉴스 2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00 백종원 클래스		20 라켓소년단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2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1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재)	05 아무튼 출연 스페셜	
12			35 굿나잇 도쿄	00 도쿄 투나잇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큐브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코몽2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팅TV
07:30 꼬미와 베베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댕동맹 유치원	15:15 클래스 e	<남미, 취향 저격 가이드북 -사랑한다면 이들을처럼, 아르헨티나>
08:30 출동! 슈퍼윈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명TV	<우리 여름을 살기로 했다 1부 다시 여름, 가거도>
09:00 뽕뽕뽕 뽕뽕뽕	16:00 마사와 꿈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어를 다이어리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댕동맹 유치원(재)	23:35 클래스 e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6일(음6월 17일 乙亥)

3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판단을 그칠 수밖에 없다. 48년생 신규는 절대로 아니 되니 꿈도 꾸서는 아니 되겠다. 60년생 당연시 하여 왔던 것 속에 의외의 맹점이 있다. 72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84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 하자. 96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82	42년생 얼마나 오래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54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66년생 행편에 맞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78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간에 쫓기게 되리라. 90년생 누구에게나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02년생 투병하고 정확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1, 84
37년생 표면은 불꽃 없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49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61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중 짐작이 갈 것이다. 73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85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을 한계가 있으니 비결은 따로 있다. 97년생 균형 잡힌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47, 86	43년생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5년생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면서 혼란스러워지리라. 67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79년생 모르고 있었으면 더 나은 행한 일이 보인다. 91년생 현재의 국면은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행운이 따른다. 03년생 운로는 좋으니 언행만 주의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8, 57
38년생 거주장스러운 것은 차치하고 편하게 임하라. 50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62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다. 74년생 정성과 솜씨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해리라. 86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98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90	32년생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면 아니 된다. 44년생 무의미한 과정은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것이 유용하다. 56년생 상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전체의 판국에 부합한다. 68년생 현재 상대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80년생 방식 한다면 상대의 시험에 빠져들 수 있느니라. 92년생 일관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9, 99
39년생 중북되는 부분에 대해 예의 주지할 필요가 있다. 51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63년생 현혹된다면 순간적으로 오판할 소지가 있다. 75년생 유기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87년생 비판적 지지를 하게 되는 판국에 이른다. 99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23, 96	33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담비지 않으면 아니 된다. 45년생 미련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57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69년생 계획대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다. 81년생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93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19, 74
40년생 의외의 장애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느니라. 52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64년생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니 패념치 말라. 76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해리라. 88년생 학수고대 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00년생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실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7, 76	34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자. 46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58년생 편지가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리라. 70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자. 82년생 실효적 관점에서 기증 참여에 할 것이다. 94년생 만일 역행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2, 67
41년생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 될 수도 있는 성국이 조성된다. 53년생 내용물은 내버려 둔 채 외형만으로 인식하다가 큰일나게 된다. 65년생 다 된 밤에 재 뿌리지 말라. 77년생 장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진음이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01년생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에서 전화위복하리라. 행운의 숫자 : 43, 97	35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 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47년생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59년생 안금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71년생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로다. 83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성부의 관건이다. 95년생 새로운 차원을 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1, 58